

##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분석 “20대 여성이 사라진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동시장에서 제일 먼저 밀려난 사람들은 여성들, 특히 여성 청년이었다. 다들 어려우니까, 남성 가장의 일자리가 우선이니까 여성 청년이 실업대책에서 소외 되어도 침묵했다. 이 침묵을 “여성 노동자에 대한 조용한 학살”이라고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여성신문』 2020. 4. 18. 기고문 중에서)은 일갈했다. 오늘은 다른가? 밀린 공과금과 학자금 대출, 부족한 취업기회 때문에 여성 청년은 덜 행복하고 걱정이 많다. 대전 여성 청년이 겪는 고통과 그 이유를 『2019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찾아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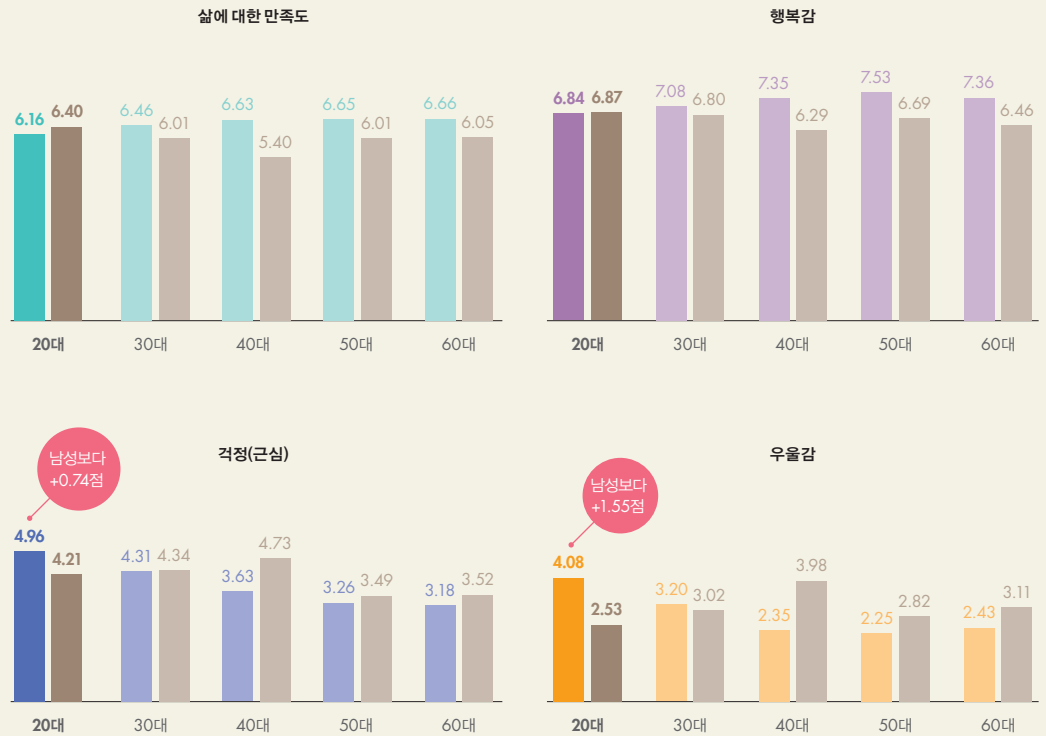
### 걱정과 우울감 20대 여성이 가장 높아

대전시민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어제의 주관적 정서 경험(행복·걱정·우울 정도)’을 살펴보자.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10점 만점)는 여성 중에선 20대(6.16점)가, 남성은 40대(5.40점)가 가장 낮다. ‘행복감’도 20대 여성(6.84점)과 40대 남성(6.29점)이 가장 낮다. ‘걱정(근심)’과 ‘우울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연령대를 보면, 여성은 20대(걱정 4.96점, 우울감 4.08점) 남성은 40대(걱정 4.73점, 우울감 3.98점)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여성의 걱정(근심)과 우울감 점수는 또래 20대 남성보다 각각 0.74점, 1.55점 높았으며, 모든 세대 중 가장 높다.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및 정서 경험

■ 여성 ■ 남성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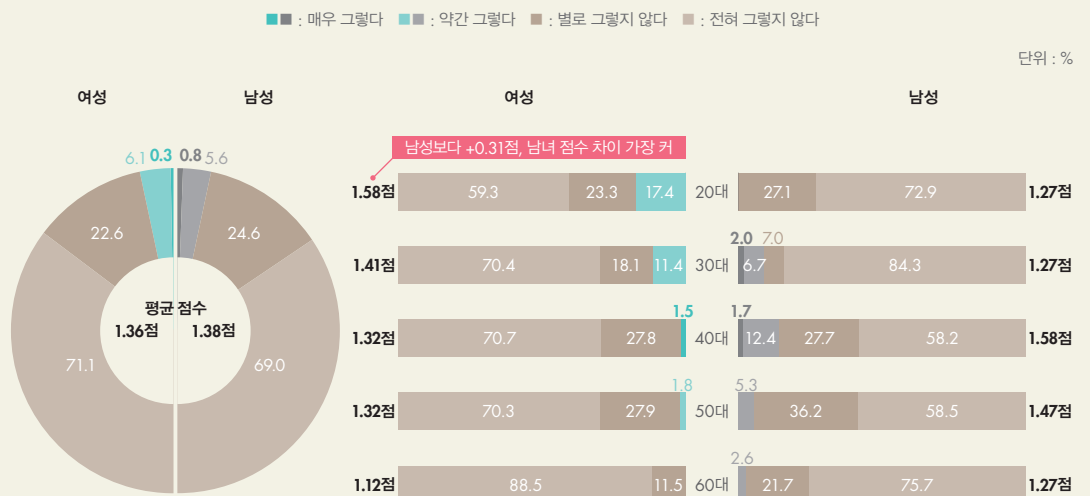


## 20대 여성은 사회적 고립감을 얼마나 느낄까?

개인의 고립감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의 3가지 항목을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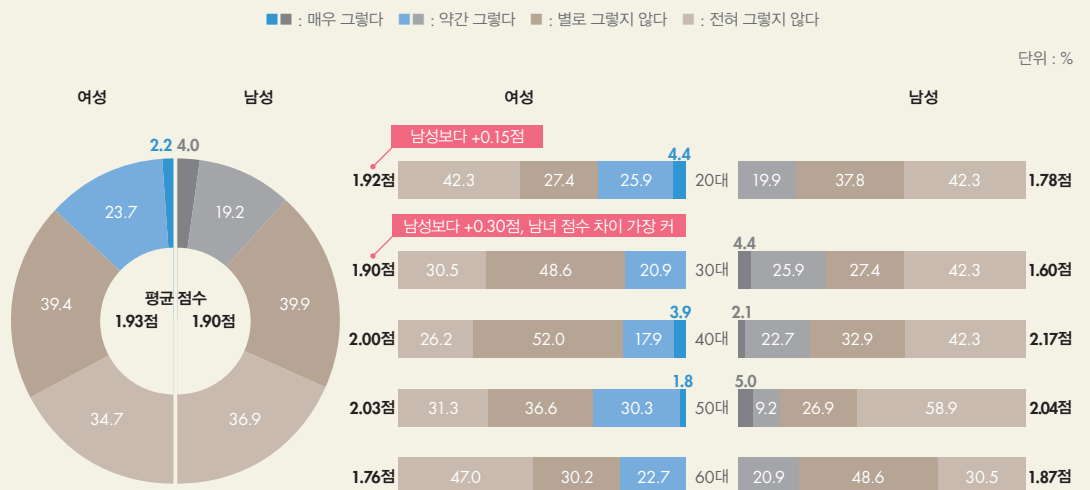
### 사회적 고립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정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정도’ 평균은 여성 1.36점(그렇지 않다 93.6%, 그렇다 6.4%), 남성 1.38점(그렇지 않다 93.7%, 그렇다 6.4%)이며,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여성 1.40점, 남성 1.39점)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보인다.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20대(1.58점)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남성은 40대(1.58점)에서 가장 높다. 특히, 20대 여성은 20대 남성(1.27점)과 비교해 0.31점 높아 남녀 점수 차이가 가장 큰 연령대로 나타났다.



### 사회적 고립감- 외롭다고 느끼는 정도

‘외롭다고 느끼는 정도’ 평균은 여성 1.93점(그렇지 않다 74.1%, 그렇다 25.9%), 남성 1.90점(그렇지 않다 76.8%, 그렇다 23.2%)이며,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여성 1.84점, 남성 1.82점)보다 높다. 여성은 50대(2.03점)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남성은 40대(2.17점)에서 가장 높다. 20대(남성보다 +0.15점)와 30대 여성(남성보다 +0.30점)은 같은 연령대 남성의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30대에서 남녀 점수 차이가 가장 크다.



1) 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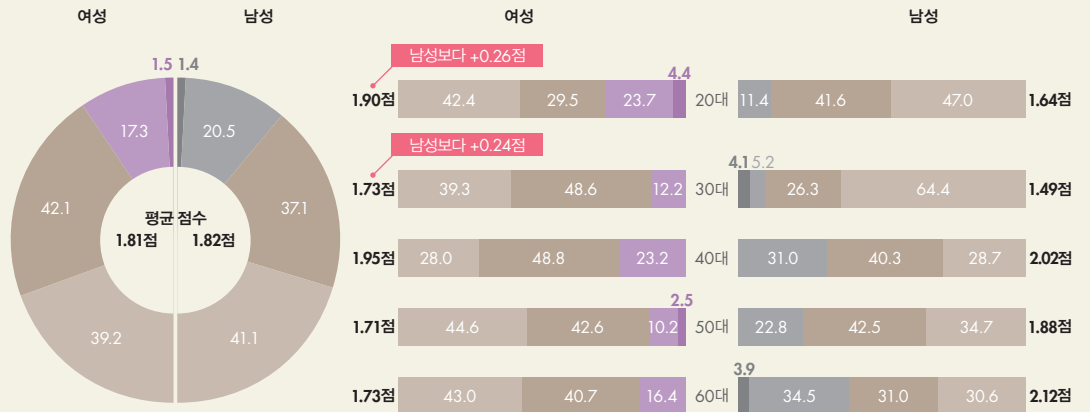
-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의 비율을 합해 ‘그렇지 않다’로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해 ‘그렇다’로 해석함
- 점수는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평균한 값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렇다고 느끼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함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사회적 고립감-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정도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정도’의 평균 점수는 대전 여성 1.81점(그렇지 않다 81.3%, 그렇다 18.7%), 남성 1.82점(그렇지 않다 78.2%, 그렇다 21.8%)이다.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여성 1.74점, 남성 1.72점)보다 다소 높으며, 연령대별로 여성은 40대(1.95점)가 가장 높다. 동일 연령대 남성과 비교해 40~60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점수가 높지만, 20대(남성보다 +0.26점)와 30대(남성보다 +0.24점)는 여성의 고립감 점수가 더 높다. 한편, 남성은 60대(2.12점)의 고립감이 가장 크다.

■ : 매우 그렇다 ■ : 약간 그렇다 ■ : 별로 그렇지 않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단위 : %



-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의 비율을 합해 ‘그렇지 않다’로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해 ‘그렇다’로 해석함
- 점수는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평균한 값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렇다고 느끼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함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2019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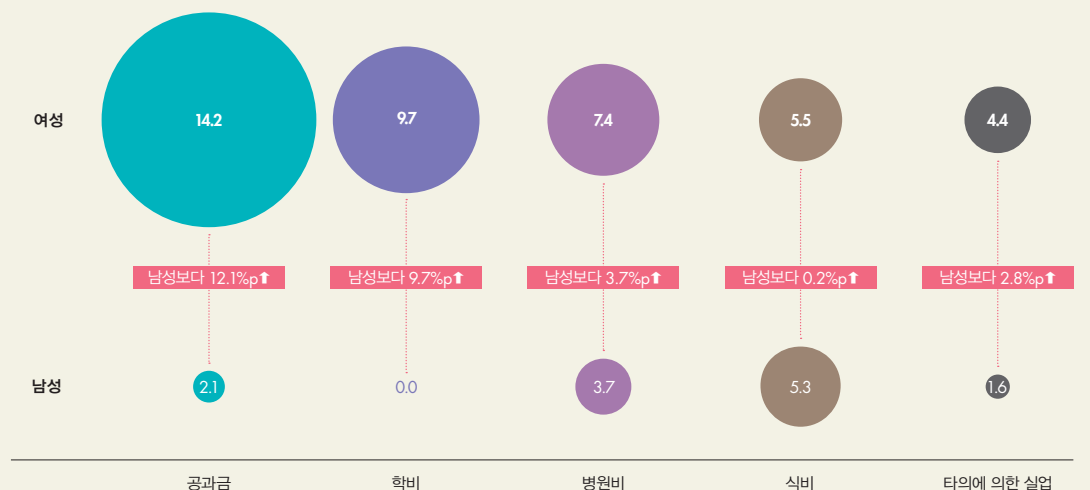
### 20대 여성 ‘공과금 납부 못해 어려웠던 경험’, 남성보다 12.1%p 높아

20대 여성은 경제적 한계 상황에 얼마큼 직면하는지 주목해보자. 소비 항목 지출 부담 측정을 통해 여성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 경제적 어려움 경험

대전 20대 여성의 14.2%가 ‘지난 1년간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 있다’고 했으며, 이는 다른 항목과 비교해 가장 높다. 이는 20대 남성(2.1%)보다 12.1%p 높으며, 가장 큰 성별 차이를 보인다. ‘학비 마련이 어려워 빌리거나 대출받은 적 있다’ 9.7%, ‘병원비 부담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적 있다’ 7.4%, ‘식비를 충당하지 못해 끼니를 거른 적 있다’ 5.5%, ‘타의에 의해 실업(권고사직, 강제퇴직 등)한 적 있다’ 4.4% 순이다. 한편, 남성은 소비 부담 중 ‘식비 문제’(5.3%)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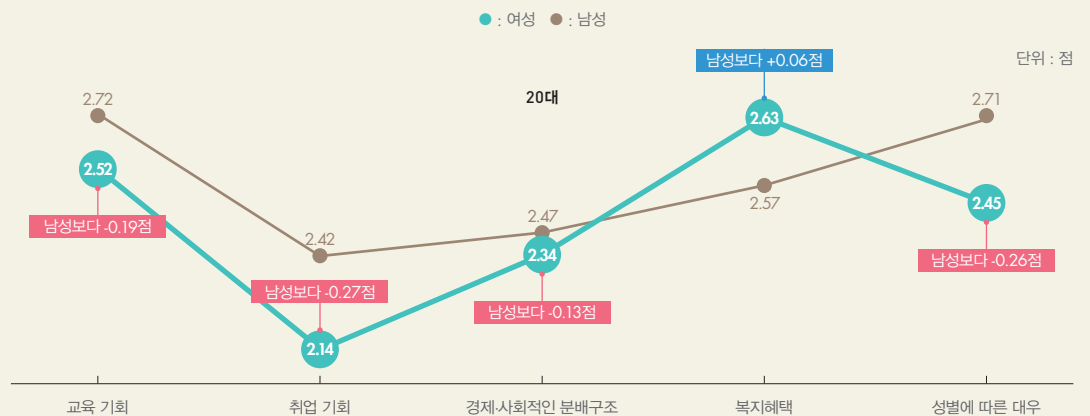
## 20대 여성, 20대 남성보다 ‘취업 기회’에 있어 공정성 점수 낮아

‘교육 기회’, ‘취업 기회’, ‘경제·사회적 분배구조’, ‘복지혜택’, ‘성별에 따른 대우’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성별,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봤다.

### 공정성에 대한 인식

20대 여성은 ‘취업 기회’에 대한 공정성 평가가 2.14점으로 가장 낮다. 다음으로 ‘경제·사회적인 분배 구조’(2.34점), ‘성별에 따른 대우’(2.45점), ‘교육 기회’(2.52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2.63점) 순이다. 20대 남성과 비교해 점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취업 기회’(20대 남성보다 -0.27점)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대우’(20대 남성보다 -0.26점)는 다음으로 격차가 크다. ‘복지 혜택’(20대 남성보다 +0.06점)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다.

- 점수는 4점 척도(전혀 공정하지 않다~ 매우 공정하다)로 평균한 값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함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2019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젠더공감 2030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최종보고회



4월 시작한 ‘젠더공감 2030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은 현재 18명이 활동 중이다. 매월 활동 공유와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콜로키움을 실시했고, 5개의 주제로 그룹 활동을 했다. 12월 17일 대전시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그룹활동 성과 보고 및 평가회를 개최했다.

비혼 여성들이 연대하고 지역에 오려 머물도록 비혼 공동체에 대한 지원 필요해

#### ‘비혼’팀

김이경·권사랑·서현덕·염동걸·윤민영·한하섬

평범하다 생각한 여성들의 삶을 드러낸 작품을 보면서 여성주의 시각으로 문화콘텐츠 직접 만들고 싶어져

#### ‘여성주의적 문화콘텐츠’팀

서한나·이유진

학교 교육 과정 안 성평등 교육 확대, 성평등 교육자의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변화 요구해야

#### ‘페미니즘 교육’팀

공연하·김규리·신주희·임유진

자료 조사를 통해 사회적·법적 보호와 고용혜택이 부족한 여성 노동자의 현실 알게 돼

#### ‘여성 일자리’팀

박준모·배재한·이기백

재난으로 드러난 돌봄노동의 젠더 간 불평등에 대해 살펴보고,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기회가 돼

#### ‘코로나시대 젠더’팀

구공주·우채림·임지수